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의 국제공로상 (INSC Global Award)



이 창 건
원자력위원회 위원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 회장

우리 원자력학회가 회원으로 있는 INSC는 2년마다 국제원자력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을 범세계적으로 발굴·선정하여 국제공로상(Global Award)을 수여한다.

1998년 INSC의 제1회 국제공로상 수상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전 사무총장 Hans Blix 박사였는데 선정이유는 탁월한 그의 업적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IAEA의 철저하고 정확·신속한 대북한 핵사찰공로가 백미(白眉)였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2002년 초 도쿄(東京)에서 열린 핵비확산 및 핵테러대책 국제회의의 의장으로 초청받은 나는 UN의 대량학살무기사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기조연설을 한 Hans Blix씨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첫날엔 도쿄 시내에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내용의 성격상 비공개가 바람직하다 하여 다음부터는 후지산(富士山) 산기슭의 한적한 곳에서 전문가들만으로 속개(續開)했다. 저녁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나는 Hans Blix씨에게 4년전 당신이 제1회 국제공로상을 받았을 때 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모르겠다는 그에게 나는 그 사람 이름이 이창건이라 했다. 그랬더니 그는 소년같이 얼굴을 붉히며 사의(謝意)를 표한 다음 좌중에게 핵사찰의 어려움과 그 정확성과 객관성 유지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2002년도의 제3회 국제공로상 수상자는 일본인 무카이보 다카시(向坊隆)씨이다. 지난 날 그는 주미 일본 대사관 원자력담당관으로 부름받아 미·일원자력협정을 모범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 평화이용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도쿄대학 교수로 돌아와서는 일본 최초로 원자력공학과를 창설했고 그후 자연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대학 총장에 취임하여 오랫동안 시무하는 동안 수많은 영재를 양성·배출하였다. 오늘날 일본을 이끌어가는 주역 중엔 그의 제자들이 유난히 많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대리 시절에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의 뼈대를 수립했는데 후진국에서 그것을 교과서처럼 인용할 정도로 훌륭하게 작성한 정책자료였다.

INSC 국제공로상은 봄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해 겨울 총회 때 시상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대상자 선정과 시상식을 동시에 거행한 것은 수상자의 개인사정 때문이었다. 무카이보 교수는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의 국제공로상 수여식에 즈음하여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는 이 기회를 빌어 무카이보 다카시 교수와 일본원자력학회에게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국제공로상패에는 무카이보 교수의 혁혁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 소속 10만명의 회원과 전세계 원자력계의 정성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패가 비록 작으나 그 무게는 몇백만톤을 헤아릴 것입니다.

또한 이 상패에는 지금 지평선 너머로 찾아들고 있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무카이 교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달라는 염원과 기대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카이보 선생님은 지난날 원자력계의 대부(代父)이셨고 또한 암흑기의 등불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몽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원자력 평화이용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무카이보 선생님에게 이 상패를 증여하는 것은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와 후배로서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을 충실히 걸어가겠으며 힘든 시절 설치하여 놓으신 원자력등불에 계속 연료를 공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아들을 암으로 잃은 다음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시상식이 열리는 겨울에 미국으로 여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달 전 일본에서 열린 회의 때 옛들은 나는 임원들과 협의하여 이번만은 대상자 선정과 함께 시상식도 도쿄에서 거행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고맙다하여 일본측은 우리 임원진 몇 사람을 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모셨다는 고급음식점에 초청하였다. 그것 역시 기분 좋았던 것은 음식맛이나 서비스 때문이라기보다는 후보자의 선정결과가 밝혀진 다음의 초청이었던 까닭이다.

국제공로상 시상식에는 일본의 최고위급 간부들과 저명인사가 거의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무카이보 교수에게 상패를 수여한 나는 수상자를 치켜세우는 치사(致謝)를 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무카이보 교수 내외는 그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또 세계각국 인사들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사회를 INSC 사무국장인 한국인(원자력연구소 정준극 부장)에게 일임할 수 있었던 것도 나로선 자랑스러웠다.

귀국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묘에 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너희들 할아버지는 일본군경에게 쫓기고 불들리고 매맞고 투옥되느라 기를 못펴고 살았다. 너희 아버지는 세월을 잘 만나 국제학술단체 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지성인에게 국제공로상을 수여하는 차원높은 방법으로 일본인들에게 복수했다. 국제공로상 시상식 석상에서 나는 신께 감사하며 줄곧 미소를 지었으나 속으로는 너희 할아버지 세대와 시대변화를 생각하며 남몰래 울었다. 너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란다 ..." 